

# Style

조선일보

AUGUST 2024  
vol. 272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10 항구도시에서 마주한 국제적 미술 협업의 예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를 끈 대만 제2의 도시 기오슝(Kaohsiung)에서 국경을 넘는 협업의 다면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만 나를 강도 높은 미술관 산책을 더해왔다.

12 패션으로 '삶의 예술을 친미하다' 계층과 규범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담은 패션 디자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디카다 겐조(Kenzo Takada, 1939~2020). 그의 창조적 여성을 도모해온 회고전이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Tokyo Opera City Art Gallery)에서 열리고 있다.

13 HIGH IMPACT 세련된 포인트를 더하는 남자들의 주얼리 컬렉션.

14 ALL THE GOOD TIMES 정교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 바쉐론 콘스탄틴. 독창적 기술과 미학적 완성도,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과 미감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타입피스를 추가했다.

16 CRUSH ON YOU 사설을 대표하는 캄팅 모티브를 심플하고도 과감하게 주얼리에 녹여낸 코코 크리스 헤인 주얼리 컬렉션.

20 TRUE LOVE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그 순간.

30 STEP TO SHINE 깔끔한 실루엣에 심플한 포인트를 갖춘 남성용 드레스 슈즈 7.

31 PERFECT WEEKEND 즐거운 주말, 교외로 나설 때 이 기분이면 충분하다. 하나쯤은 구비해두어야 할,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춘 웨렌드 빅 백.

32 EDITOR'S PICK 흥기철에도 놓칠 수 없는 피부 관리. 13가지 에센셜한 뷰티템으로 시작해보자.

33 RADIANT SCENTS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브랜드, 사설의 창시자 가브리엘 사설. 한 여성으로서 진부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넘어 그녀 그 자체를 담은 매력적인 향수, 가브리엘 사설에서 또 하나의 향을 선보인다.

34 HAUTE LIVING 2024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인 '살로네 델 모빌 레(Salone del Mobile)'. 박람회 개최 기간에 도심 곳곳의 팔리초와 소룸 등에서 여러 패션 브랜드가 라이팅 컬렉션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보인다. 그 중 <스타일 조선일보>가 주목하는 패션 브랜드의 라이팅 컬렉션 하이라이트.

36 DIVINELY SERENE 삶을 통째로 '보금자리'로 삼는 아만풀로(Amanpulo)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라완(Palawan)의 보석 같은 리조트다. 은은하게 번져나는 하얀 모래가 펼쳐진 6.5km의 고운 해변을 긴 바다는 거의 투명에 가까운 맑음을 품고 있고, 연한 청록색을 비롯해 밀로 형용하기 힘든 이름다운 색채의 스펙트럼을 뿜어낸다.

38 BE UNIQUE 컬러와 프레임, 사이즈가 남다른 선글라스로 완성하는 유니크한 룩.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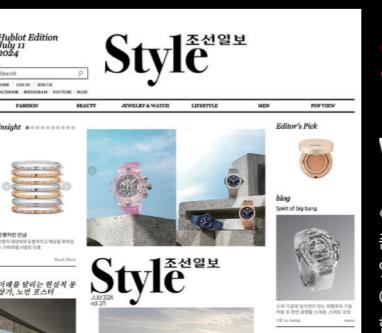


케이스 지름 35mm와 34.5mm, 두 가지 서로운 바전으로 선보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사이즈 컬렉션은 기준에 비해 더욱 슬림하면서도 인체 공학적인 라인으로 놀랄만한 느낌을 주는 실루엣이 트렌디하고 인상적이다. 표지 속 모델은 18K 5N 핑크 골드로 아이코닉한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칼리버 1088/1을 장착했다. 케이스 백에서는 오버사이즈 컬렉션의 상징인 원드로즈 모티브로 장식한 22K 골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Style  
조선일보  
Issue.272 August 2024

대표 방정우 cbang@chosun.com  
편집장 김민미 ymk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장라윤 rarara@chosun.com 예술가 성민 smj@chosun.com  
에디터 윤자경 yjk@chosun.com 디자일 에디터 신경임 sj@chosun.com 아트 나는건마니  
교열 이정선 광고 마케팅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chosun.com  
이정선 이정선 jip556@chosun.com 유후희 whyo@chosun.com 제작 김현지 hgkim@chosun.com  
재무 노인경 분해 제판 담임 인쇄 티라피파이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3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히어파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형동, 성복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대상으로 배달됩니다.  
※ 3, 4, 9, 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티일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블로그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과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오. stylechosun.com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WEST 천안점 대전점 진주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점 잠실점 인천타미힐점 부산본점 월드타워점 동탄점 수원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광복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본점 타임스퀘어점 의정부점 경기점 하남점 대전점 천안아산점 부산센텀시티점 김해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판교점 중동점 충청점 대구점 울산점 AK플라자 수원점 태그호리어 더현대서울점 02-3277-0147  
제품 및 AS 문의 \_ www.tagheuer.com/ko



# 이거 하나쯤, 톡톡!

이종부터 저녁까지 기법과 빛나는 피부를 선사해줄 하이엔드 쿠션.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로에베 미니 로에베 폰트 토트** 여름의 무드와 어울리는 핑크 컬러 리피아 소재를 사용했으며 로에베 시그니처로고를 더했다. 1백4만원, 문의 02-3479-1785  
**디올 뷰티 디올 포에비 톤업 쿠션 리필**  
**#01 아프리코 & 디올 포에비 쿠션 케이스 베이지** 아시아인의 피부톤에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컬러와 촉촉한 텍스처로 화사하고 균일한 피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리필 13g 62,000원대, 케이스 4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뷰티 키우션 드 보매 2.5 보습에  
효과적인 글리콜과 글리시리ん 성분을 담아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컨디션을 선사하며,  
기벼운 텍스처로 피부에 짐없이 덧住址을  
수 있다. 14g 10만8천원대. 문의 080-  
850-0708 아르마니 뷰티 마이 아르마니  
투고 앤솔루션 인 파운데이션 컨서 2호 리치  
추출물, 글리시리ん, 헬리우론산이 들어 있어  
고보습과 쿨링감을 자랑하며, 피부에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15g 10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DREAM WATCH

자신 4월 버서론 콘스티튜션은 특별한  
캘리포니아 선위자를 선보였다. 오트 쿠퍼는  
다자녀 10명 중의 손에서 탄생한 사원들도고  
독특한 디자인의 애제리 문페이즈가 그  
주인공. 2020년 차운 선보인 캘리선스으로  
여성을 위한 하이 워치페이즈 세계에서 특유의  
스타일을 경질한 애제리와 의미가 더 깊다.  
오트 쿠퍼는 의상과 연상시키는 암중맞은  
플리츠 및 드레이프 효과를 접목한 것이  
특징. 디아얼과 문페이즈 속 구름은 은은한  
빛이 깅도록 라이트한 무게에 브라운  
비아울렛 컬러의 멀티오버趴을 사용해 마치  
신비한 향수를 꾸는 듯 묘한 향과 이를 담을  
국내에 데뷔했다. 37mm 사이즈의 케이스는 핑크  
골드 소재를 적용했으며, 베젤에 디아이온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교체 가능한 세  
가지 스트랩을 제공하며, 1백 피스 한정으로  
선보인다. 문의 1877-4306



# 찬란한 아름다움

포렐라토는 밀라노가 지난 두 가지 모습과 '불굴'의 도전 정신에 바치는 헌사라는 주제로 뉴얼리즘 오브 밀란(Dualism of Milan) 2024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51개의 주얼리 피스가 포함된 이번 컬렉션은 '단색적인 밀라노의 보물'과 '밀라노의 컬러 프리즘'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우선 단색적인 밀라노의 보물은 포르탈루피(Portaluppi)가 설계한 천체 투영관에서 발간할 수 있는 곧은 직선, 톤온톤의 별 조각으로 장식한 고전주의 디테일을 주얼리에 그대로 녹여냈다. 반면 밀라노의 컬러 프리즘은 지오 폰티(Gio Ponti)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예상을 뛰어넘는 컬러 조합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자연에서 탄생한 희귀하고 생동감 넘치는 원석을 활용해 색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문의 02-3143-9486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클래식, 스타일로 기억되다

샤넬의 11.12 백은 하우스의 상징으로 지난 수년간 여러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컬러, 형태, 소재로  
신하하며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황에 따라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다 이브닝 백으로도 변신  
기능할 정도로 클래식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레더와 함께 옆은 체인의 링크에는  
하우스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표현했고, CC 잠금장치는 여성들의 삶의 비하인드 신을  
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샤넬의 2024~25 F/W 프리 컬렉션은 관능적인 여성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컬렉션으로 짙은 브라운 컬러에서 그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 KEEP YOUR COOL



# BLUE LUCK

1968년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반클리프  
아펠의 알罕布拉(Alhambra) 주얼리 컬렉션은 그 자체로  
행운을 상징하는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다. 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주얼 워치인 스위트 알罕布拉 워치를 사용해  
선보인다. 기묘세 창식으로 완성한 멜로 골드 플라워와 블루  
아이게이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 모든 플라워는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인 골드 비즈 테두리로  
섬세하게 완성했으며, 블루 아이게이트의 컬러 포인트가  
특별함을 더한다.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 FLY TO THE MOON

조로 달에 간 시계로 유명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에서 새로운 베리에이션의 모델을 출시해 그의 마음을 살피게 한다. 이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42mm 케이스에 블랙 및 브러시드 처리한 스트랩을 적용했으며, 전면과 백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리스로 마무리했다. 시계판에는 출시했던 4시대 스피드마스터 스타일에서 양면방수 바디 디자인 케이스, 화이트 레거 키스汀 디아일, 흑색 오메가 로고 및 인덱스, 문워치 스탠다일 핸즈, 그리고 낙서 DON(Dot Over Ninty) 디타일의 양극화된 블랙 알루미늄 베젤링이 특장다. 가격은 1천1백70만원, 문의 080-500-1848



쟁쟁한 뮤지션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이 아님에도 요즘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회제의 공간 오디움(Audeum). 청계천(서울 서초구) 자리에 자리한 이 빈티지 오디오 뮤지엄의 인기는 언뜻 이 공간의 배경을 수놓고 있는 화려한 이름들의 조합이 빛어낸 괴짜 현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일단 설립자가 '오디오 파일' 사이에사는 예전부터 진정성 있는 빈티지 오디오 애호가로 유명한 정몽진 KCC 회장인 데다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가 뮤지엄 설계를 맡았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디자이너인 하라 겐야가 브랜딩을 이끌었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지난해 기을 구마 겐고의 도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공간을 보니 어째서 건축가가 대표작의 하나로 꼽는다는 기가 들리는지 알 듯했다. 날씨 좋은 날, 멀리서 보면 하얀색으로도 보이는 파사드를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다가가면 건물을 수직으로 감싸는 2면여개 알루미늄 파이프가 빛에 반사되면서 차지내는 효과만 걸 수 있다. 돌, 나무, 종이를 선호하는 구마 겐고의 전형적인 재료는 아니지만 카다란 풍경(風聲)처럼 은근히 석인 오리를 뿐이네, 실내에서 보면 마치 숲속 미풍 속에서 흔들리는 가는 나무들의 세레나데 같기도 하다. 으로 들어서면 나무 마감재가 주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지는데, 내부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구마 겐고 표

티알리사함에 실용성을 더한 남성 서머 슬라이드. (위부터 차례대로) 블랙과 브라운 컬러의 부드러운  
이지가죽을 크로스해 시그너처인 H 로고를 연출했으며,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리버 솔을  
한 샌들 1백9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와플에서 영감받은 컷아웃 디테일 디자인이  
보이며, LV 아나셀 로고가 버터가 녹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LV 와플 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2-3432-1854.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클래식한 무드를 완성한, 발등을 감싸주는 고미노  
브를 물 80만원대 **트조**. 문의 02-3448-823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Selection

순백의 드레스와 반짝이는 주얼리, 그리고 단정한 수트와 시크한 맨 액세서리까지,  
우아하고도 숭고한 하모니가 돋보이는 순간.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for  
HER



1 나비의 두 날개에 디아이몬드를 사용하고  
18K 골드 소재로 완성한 투 버디풀리아 펜던트 2천3백  
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2 웨딩 2부파티에서 기법을 볼 수 있는 우아한  
무드의 마이크로 봉동 울리버 펠 아보리 세인트 모니백, 11.5x7x12cm, 2만  
4천원 **지미주** 3 전세계인 웨딩 투에 사링스러운 포인트가 돋아날 증 29.1g의  
아코야 양식 진주 25mm와 총 2.99克拉의 브릴리언트 컷 디아이몬드 2백97를 세팅한 조  
세핀 아그리피나 오리엔탈 6천원대 소매, 4 블드한 프로포즈이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연출해  
줄 아세피아 소재의 신글리스 5천5천원 풀로에, 5 보디에는 브랜드의 이어Jennifer 풀은 로레  
토스 모노그램 칸토스를, 꼬리는 인조 모피를 더해 귀여우면서도 스트로밍한 로레토스 칸팅 인형  
65만원 **MCM** 6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파이퍼 솔리아 파페 킹 가격 미정 턱시도  
아세피아 풀로에, 7 솔립 한 하리 리본을 강조하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드레스 가격 미정 **엘리 소포클리** by 소유  
브라더 8 화이트 골드 소재에 디아이몬드로 장식하게 꽂 실루엣을 완성한 와인드 플라워 디아이몬  
드 네이크스 9천9백만원 **그라프** 9 가 손에도 잘 어울릴 23mm 캐스를 갖춘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로열 오크 미니 프로스터드 골드 퀴즈 5천21만원 **오데마 피게** 10 시번 소재의 디아이몬드하고 화  
려한 플라워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플랩 백, 12x20x6cm, 가격 미정 **샤넬** 11 총 3.38g  
의 6개 트로피온 컷 디아이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카멜리아 변형 가능한 이  
어링 1천2백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12 링고, 엘론, 리즈베리, 지우, 구버와 피파와 등  
열대 과일의 향기찬 아로마기 풍성한 펜던트스프레이 세트트 미가렛 750ml 가격 미정 **페  
르노리카 코리아**, 13 헤일트 토피즈, 자케, 그리고 디아이몬드의 심장한 조화가 우아  
함을 배가하는 두드 브리에슬릿 가격 미정 **포렐리토**, 14 치분한 무드의 비즈킷 컬러  
와 트로피아 배지 컬러의 양 쪽으로 제작한 라이디 디올 스몰 백, 20x17x8cm,  
가격 미정 **디올**, 15 시퀀스로운 핑크 컬러 세단 소재에 라이지 디자인을 기미한 아  
이브 비비에 디아이 스트리스 샌들 핑크 1백74만원 **로저 비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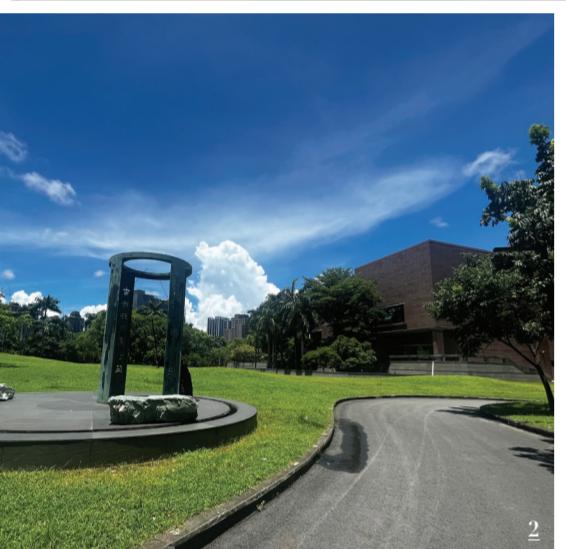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지미주 02-3443-9469 소매 02-167-  
1180 풀로에 02-517-6060 MCM 1600-1976 턱시도 02-3461-  
5568 엘리 소포클리 by 소유 브라더 02-541-7077 그라프  
02-2256-8810 오데마 피게 02-533-1351 샤넬 080-  
805-9628 샤넬 화인주얼리 080-805-9628  
페르노리카 코리아 02-3466-5700 포렐리토  
02-3143-9486 디올 02-3480-0104  
로저 비비에 02-6305-3370



1 김자연 칼리 그레이트리닝 영화  
면서도 사랑과 멘모를 부여하는 미스트리틱 6cc 지  
갑 6천4백만원 풀블랑, 2 소스로운 실크와 시크한 무드를 강조하  
는 선글라스 61만5천원 생 로랑 by 안토니 바가렐로 3 콘소  
재의 포틀린 포켓 카드 톱도 세련 백만원, 고급스러운 무드의 새  
틴 소재의 실리카론 토보이 25만원, 켄트 헨더슨드 라인 텍스토 재킷  
가격 미정, 단정한 디자인 그레이과 헨더슨드 라인 트위저 가격 미정 모  
두 펠프 로렌 펄 페즐, 4 두드럽고 간결한 토피고 펄 스蹊으로 제작한 오  
드 아크아이 쿠드 솔리아 백 40x36cm, 3천3백71만원 에르메스, 5 귀  
여운 꿈들이 디자인의 랜디, 틴 가죽 철 900원대 랜디, 6 오크 풍에서 속성  
한 후 꽃들이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깊은 풍이  
를 자랑하는 발리나 40년 레이 매리지 700ml 가격 미정 발리나, 7 헤일트 풀  
드의 블랙 세리피를 조합한 카우얼한 디자인으로 시크한 멋을 드러내는 트로피아 킹  
2백만원의 까르띠에, 8 틀리아 화이트의 나뭇잎 향기 그대로 누드 깊은  
시트로스 향을 자랑하는 나탈리 포트모피, 퍼퓸 50ml 61만5천원 퍼드 뷔  
티, 9 디아이몬드를 피부 세련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센 브리슬릿 1천4  
백40만원 프레드, 10 도회적인 무드를 강조하는 디자인에 디아이몬드를 세팅  
한 900그램 골드 소재의 비제로인 네이브로스 9백5천원 불가리, 11 단정한 웨  
딩 수트에 심플한 포트가 디아이 몽고 골드 소재의 러브 노 커스스 링크 1천2  
백만원 그라프, 12 42mm 스플 캐스에 블랙 세리피의 60마릿 단방향 회  
전 배걸을 장착한 아우터에서 프로세사닐 300 5백50만원 태그홀리, 13  
최고급 아노디즈드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독보적인 그루브 패턴 디자인의  
특장인 오리지널 파일럿, 42x50x23cm, 2백13만원 리모와, 14 편안한 착  
용감을 선사하는 키프스킨 소재 세리피 워크로퍼 1백50만원 로로피아.

몽블랑 1877-5408 생 로랑 by 안토니 바가렐로 02-517-6060 펄프 로렌 펄  
라벨 02-3438-6235 에르메스 02-542-6622 그라프 02-2256-6810 퍼  
드 02-514-3721 발리나 02-2152-1600 불가리 02-6105-1200 풀  
포드 뷔티 02-6971-3211 태그홀리 02-3277-0147 까르띠에  
1877-4326 브랜디 02-544-1925 로로피나 02-546-  
0615 리모와 02-546-3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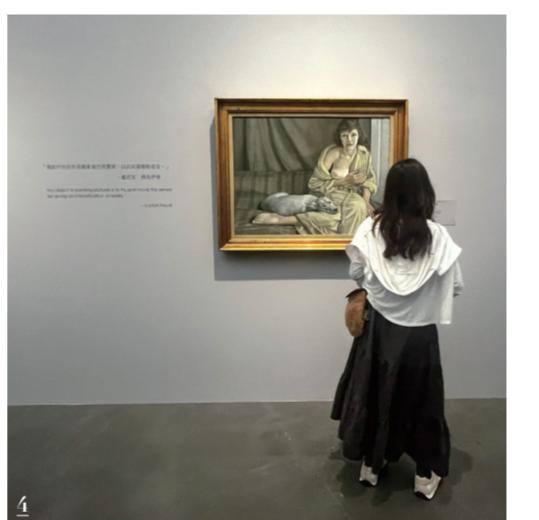
1  
가오슝(Kaohsiung) 미술관 산책

# 항구도시에서 마주한 국제적 미술 협업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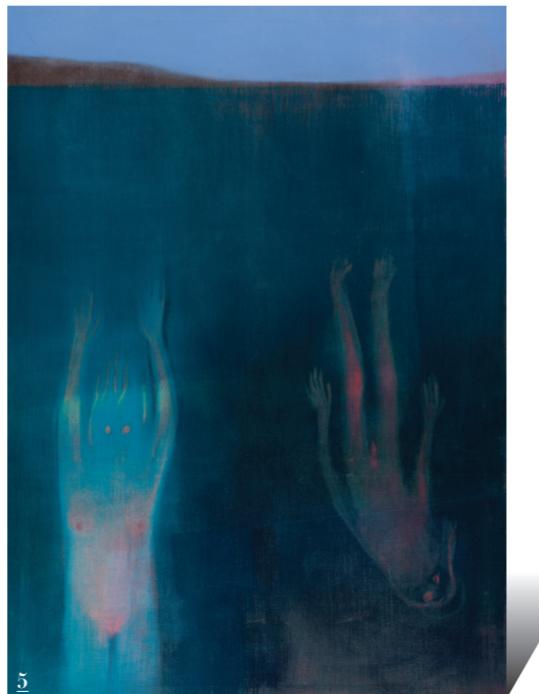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대만은 근현대사를 놓고 볼 때 한국과 닮은 면이 많다. 깊은 상흔을 남긴 전쟁과 식민지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수식어를 끼차게 한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의 진통과 높은 교육열, 최근의 문화 예술계 동향을 보자면 외국 자본이 주도한 아트 페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의 '아트 미케팅'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궤적만큼이나 다른 면모도 많다. 바로 그 같은 묘한 닮음과 차이의 매력이 바다 너머 멀리까지 도시 탐방에 도전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를 끈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Kaohsiung)에서 국경을 넘는 '협업'의 다면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짧지만 나름 강도 높은 미술관 산책을 다녀왔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여러 차례 찾게 된 대만. 첫 방문지인 수도 타이베이를 위시해 마치 도장 깨기처럼 주요 도시들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행했는데, 매번 고속열차(HSR) 노선에서 더 남쪽에 자리한 주요 도시를 하나씩 목록에 더해나가는 식이었다. 타이베이 → 타이중 → 타이난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길지 않은 일정을 틈틈 미술관 주제의 방문이었으나 '이 도시를 섭렵했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늘 그렇듯 주제가 있는 여행은 꽤 밀도 높은 경험과 지식을 안겨준다. '뮤지엄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앙드레 말로), 또 어떤 미술 사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다. '뮤지엄의 소장품에 대해 논쟁한다는 것은 곧 그 가치와 도덕성, 나아가 정체성을 논하는 것과 같다. 뮤지엄 관람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끌어내며 찾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도미니크 폴로).

솔직히 현지에서는 전중한 논쟁거리나 스스로의 정체성 찾기에 골몰할 여유를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소장품은 다시 볼 수 있다 해도 기획전 형식의 콘텐츠는 도록과 기억

4  
런던에서 날아온 기획전, 현대미술 거장들이 한자리에

만기고 사라지기에 타고난 성향에도 맞지 않는 듯한 '부자연'을 떨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꽤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섬세한 경험은 반드시 어딘가에 예리하게 자리 잡는 듯하다. 짧은 감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단상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깨달음이나 사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만한 반짝이는 순간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 목록에 추가한 대만 남부의 항구 도시 가오슝(Kaohsiung)에서는 동서를 잇는 협업의 스토리텔링을 만났다. 언뜻 화려한 듯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 '물건' 온 전시 같은데, 그 배경을 들어다보면 여러모로 흥미로운 면이 엿보이는 기획전이다(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못 여러 의견이 나올 만한).

5  
직지만 화려한 리안업, 동서양의 컬렉션을 엮은 협업

가오슝 전시 현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다를 것 같다(전시 초기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열기'가 느껴졌다). 이러한 온도 차는 아무래도 전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달라서가 아닐까 싶다. 그 출발점부터 살펴보자면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는 동서양이 만난 협업전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플랫폼인 테이트의 소장품과 대만의 기업가이자 유명한 미술 컬렉터인 피에르 첸(Pierre Chen, b. 1956)이끄는 야게오 재단(YAGEO Foundation) 소장품이 힘을 합쳤다. 이번 가오슝 협업전의 작품 구성은 테이트 소장품 34점, 야게오 재단 소장품 21점으로 이뤄져 있다. 테이트 관장을 자냈다는 니컬러스 세로타가 재직하고 있던 당시 피에르 첸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되어 한참 만에 실제로 구현됐다는 이 전시는 동서양 미술 기관의 만남이기는 한데, 하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랑하는 미술관이고, 하나는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을 담당하는 사립 재단이다. 어찌 보면 피에르 첸의 화려한 컬렉션(이번 기획전에서는 스기모토 히로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서구 작가의 작품만 포함됐지만)을 런던에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가오슝을 찾은 테이트 모던 국제 미술 컬렉션 디렉터 그레고르 무이어(Gregor Muir)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비범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컬렉션을 보고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하고 풀어내는 일은 정말로 즐거운 작업"이라며 "수집은 일종의 예술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컬렉션과 협업하는 건 멋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품 전시는 대개 '상향식'으로 전개되는 일반 전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어 큐레이터로서도 흥미롭다는 얘기다.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일은 '통합'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진 것, 그들이 가진 것이 있고, 거기에서 '연결 고리(connections)'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일례로 야게오 재단에서 소장한 앤드레아스 거스키의 작품 'May Day IV'(2000) 옆에 걸린 테이트의 거스키 소장품 'Paris, Montparnasse'(1993)를 한 공간에서 감상하는 건 매력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협업전은 '주제가 있는 소장품 전시'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전시는 애초에 그런 윤곽으로 다가왔다. '사진+회화'라는 주제에 끌려가보는 야게오 재단의 소장품 목록을 훑어보는 '피에르 첸'부터 검색하게 됐다. 동양의 부유한 컬렉션이 영국인들에게 조금 낯설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한 애호가의 현대미술에 대한 사랑과 수집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1 대만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을 대표하는 공공 미술관 가오슝 시립 미술관(KMFA)에서 지난 6월 말 익을 올린 특별전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 전시 모습. 영국 런던에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열었던 전시의 대만 단독 순회전이다. 테이트 소장품과 더불어 대만의 60대 기업가이자 컬렉터 피에르 첸(Pierre Chen)이 010만 원에 매입한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로 양 기관의 소장품이 어우러져 전시된다. 전시에 보이는 벽에는 2018년 당시 작가의 레이카 사진 전시로 회화가 됐던 대만 브랜드와 피에르 첸의 대작 *'Portrait of an Artist with Two Figures'*(1972)가 보인다(야게오 재단 소장). 야게오 재단 KMFA 2기 오승 시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생태 예술원.

3 Jeff Wall, 'A Sudden Gust of Wind(after Hokusai)'(1993). 일본 목판화, 유리에 대기 밴시카 호쿠사이의 19세기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 작품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따로 활영해 디자인 한 작품이다. 229×377cm, 테이트 소장품. Courtesy of the artist 4 가오슝 시립 미술관 전시장에서 테이트 소장인 러시안 프리에르 루시안 프레드(Lucian Freud)의 유일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커플. 야게오 재단 소장품. 5 스웨덴 작가 미라임 칸(Miriam Cahn)의 대형 유화 작품 'The Beautiful Blue'(2009~2017). 테이트 소장품(Purchased with funds provided by The Joe and Marie Donnelly Acquisition Fund 2020). © Miriam Cahn 6 영국 작가 피터 도이(Peter Doig)의 1990년대 대형 유화 'Canoe Lake'(1997~98)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야게오 재단 소장품. 7 독일 현대 미술 거장 제리하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 'Two Candles'(1982). © Gerhard Richter 2024/05/03/024. 8 일본 사진家用 기장 스기모토 히로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커플. 야게오 재단 소장품. 9 2017년 중간 규모 속소집 전시를 했던 미술관 전시 공간으로 텔비공연 카이에로인 이트 센터(ALIEN Art Centre). 2016년 설립된 이트 센터는 이틀 차량 외계인을 닮은 독특한 건축물로 가오슝 미술계의 명물이다. 10 건축가 류미에 신영희(沈英熙)이 설계한 네이웨이터 센터(Neili Arts Center) 외관. 인접해 있는 가오슝 시립 미술관, 영화관, 어린이 미술관 등이 함께 삶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삶이라는 기준을 주구하는 이트 센터로 전시 공간,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 2, 4, 6, 9, 10 Photo by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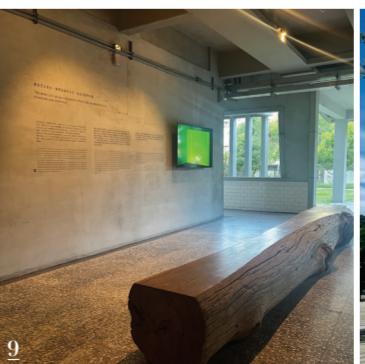
6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런던 전시에서는 그의 소장품 중 동양인 작가들에 비중을 두고, 가오슝 전시에서는 (지금처럼) 서구 작가들이 주로 소개되는 구성을 했다면 균형 잡힌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가오슝에서는 홍보 방향 자체가 달랐다. 가오슝 시립 미술관은 '티켓 한 장이면 (테이트 모던의 기획전에서 전시된) 세계적인 걸작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런던 전시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가오슝에서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테이트'라는 브랜드와 피에르 첸이 근사하게 병치되는 구도를 마다할 현지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타이난 태생이지만 가오슝에서 자라고 향처럼 애틋한 진심을 지닌 듯한 피에르 첸은 이 전시가 작품 대여로 없이 양 기관 모두 '순수한 협업'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이 전시가 다른 도시로 '순수'될 가능성에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 정부도 기꺼이 지원에 나섰다. 특히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30세 미만 관람객들에게는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전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다른 기관에서 콘텐츠를 통째로 빌려 오는 순회전이 많은 요즘 시대에 기획자라면 현지의 감성과 실익을 떠올리는 '협업'의 역학을 고심해봐야 할 것 같다. 글 고성연/가오슝 현지 취재

3  
런던에서 날아온 기획전, 현대미술 거장들이 한자리에5  
직지만 화려한 리안업, 동서양의 컬렉션을 엮은 협업

가오슝 전시 현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다를 것 같다(전시 초기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열기'가 느껴졌다). 이러한 온도 차는 아무래도 전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달라서가 아닐까 싶다. 그 출발점부터 살펴보자면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는 동서양이 만난 협업전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플랫폼인 테이트의 소장품과 대만의 기업가이자 유명한 미술 컬렉터인 피에르 첸(Pierre Chen, b. 1956)이끄는 야게오 재단(YAGEO Foundation) 소장품이 힘을 합쳤다. 이번 가오슝 협업전의 작품 구성은 테이트 소장품 34점, 야게오 재단 소장품 21점으로 이뤄져 있다. 테이트 관장을 자냈다는 니컬러스 세로타가 재직하고 있던 당시 피에르 첸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되어 한참 만에 실제로 구현됐다는 이 전시는 동서양 미술 기관의 만남이기는 한데, 하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랑하는 미술관이고, 하나는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을 담당하는 사립 재단이다. 어찌 보면 피에르 첸의 화려한 컬렉션(이번 기획전에서는 스기모토 히로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서구 작가의 작품만 포함됐지만)을 런던에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가오슝을 찾은 테이트 모던 국제 미술 컬렉션 디렉터 그레고르 무이어(Gregor Muir)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비범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컬렉션을 보고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하고 풀어내는 일은 정말로 즐거운 작업"이라며 "수집은 일종의 예술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컬렉션과 협업하는 건 멋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품 전시는 대개 '상향식'으로 전개되는 일반 전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어 큐레이터로서도 흥미롭다는 얘기다.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 회고전

## 패션으로 '삶의 예술'을 찬미하다

계층과 규범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담은 패션 디자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 1939~2020). 20대 청년 시절, 프랑스로 향한 그는 5월 혁명 정신과 맞닿은 진취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1970년대 파리 패션계에서 성공한 최초의 동양인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다졌고, 훗날 '겐조(KENZO)'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냈다. 2020년 코로나 핵병증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의 창조적 여정을 되짚어보는 회고전 <Chasing Dreams>가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7월 6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하며 거듭 진화해나간 패션 거장의 역동적인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장이다.

### 파리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젊은 이방인

1939년 2월 27일 일본 히메지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는 어릴 때부터 문화 예술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가 남달랐다. 그의 부모님은 히메지 성 북쪽에 있는 고급 유통 사업인 '나나와이(浪花樓)'를 운영했는데, 덕분에 겐조는 개이사들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성장했다. 또 누나들 옆에서 섬세한 미의식과 감성을 키우며 패션에 눈을 뗀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고베 외국어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를 도쿄 백화점 칼리지로 이끌었고, 졸업 후 의류업체 산야이(三愛)에서 디자이너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늘 더 큰 세상을 꿈꾸던 그는 1964년 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다(해 여행에서 들른 기행지에서 본 다양한 민속 의상은 이후 작품의 주요 모티브가 됐다).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언택트 앤드 앤더 젊은 이방인 겐조는 호기롭게 스케어만 들고 패션계의 문을 두드렸다. 루이 페로(Louis Féraud) 부두크를 시작으로 <엘르(ELLE)> 등 유력 패션지로부터 스케치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그는 차츰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용합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버무려 자신만의 패션 언어를 완성해나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관과 조조하며 그를 패션계의 총이로 부기했다.

### 모든 '낯섦'을 새로운 미감으로 승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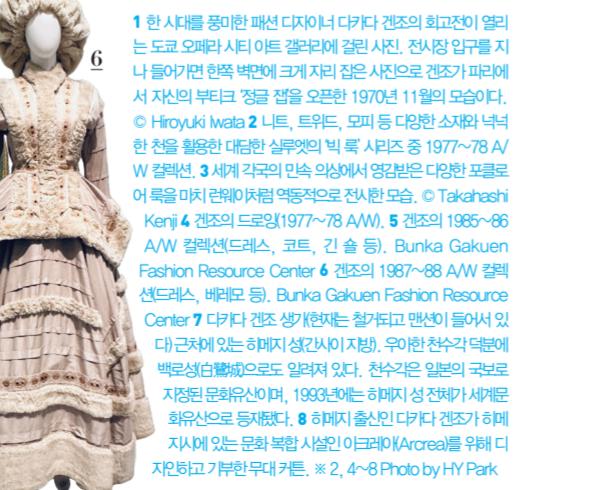
그가 파리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를 호령하게 된 계기는 오버사이즈 패션인 '빅 룩(big look)'에서 시작됐다. 몸의 곡선을 따르는 대신 넓어진 원단과 여리 소재를 활용한, 신체와 의상 사이의 여유 공간에서 나오는 '벗은' 찬란함에 딱 달렸다. 이 여유 공간은 자유를 길망하던 이들에게 해방감으로 어가진 동시에 편안한 움직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됐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컬렉션마다 독창적인 테마와 트렌드를 선도하며 패션계를 충분시킨 겐조는 당시 엄숙했던 파리 패션계의 소 형식도 깠다.

모델들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걸으며 관객과 함께 춤추는 파티 형식의 패션으로 새 징을 연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정상에는 '놀이의 정신'이 있었다. 이는 창작을 자행하는 큰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추후에 자신의 브랜드 겐조를 일개 한 원인기도 했다. 1993년 LVMH 그룹에 자신의 브랜드를 매각한 후에도 디자인을 이끈 그는 경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물러났다. 1999년 10월, 파리 북쪽 콘서트홀에서 열린 겐조의 마지막 쇼는 그의 창작력을 집대성하듯, 거대한 스크린과 백 명이 넘는 모델, 그리고 실제 뼈마끼지 등장사진 작품이었다. 이후 그는 이태네일리피 일본 선수단의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고, 프랑스 예술문화총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받으며 압적을 인정받았다.



새로운 세계에서 미주한 모든 '낯섦'을 자신만의 미적 감각으로 해석해 패션의 한 징을 쓴 다카다 겐조. 그는 동서양을 이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패션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융합한 선구자로 기억된다. 어쩌면 패션의 오래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의 친련한 유산을 전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번 회고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설렘을 주기도 한다. 오는 9월 중순 도쿄에서는 막을 내리지만 2025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기간에 맞춰 내년 4월부터 순회전 형식으로 겐조의 고향에 있는 히메지 시립 미술관(Himeji City Museum of Art)에서 더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글 빙대연(도쿄 히메지 현지 취재) Edited by 고성연



1 한 시대를 풍미한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의 회고전이 열리는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 걸린 사진. 전시장 입구를 지나 들어온 히메지 백화점에 크게 자리 잡은 사진으로 겐조가 관리에서 자신의 부두크 정을 접을 오후인 1970년 11월의 모습이다.  
2 Hiroki Iwata 3 네트, 트위드, 모피 등 다양한 소재의 낙타 한 쪽을 활용한 유동감 있는 빅 룩 샵증 중 1977~78 A/W 컬렉션. 4 세자각(三才閣)의 '속' 의상에서 영감을 딴 다양한 프로 어 블록을 미치우며 딱지로 디자인한 모음. © Takahashi Kenji 5 겐조의 드로잉(1977~78 A/W). 6 겐조의 1988~89 A/W 컬렉션 드레스. 7 겐조의 1987~88 A/W 컬렉션 드레스. 8 히메지 출신인 아카데미(Accred)를 위해 디자인하고 기부한 무대 커튼. \* 2, 4~8 Photo by Hy Park



# High impact

세련된 포인트를 더하는 남자들의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부터지 챠리티) 파이에 프세션 릴 메종의 이이코는 디자인으로 글로벌 인사로 모던한 매력을 자아내며, 회전 모티브를 담아 세련하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릴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0.03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6 백40만원대. 문의 1669-1874 밸리프 아벨 브리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섬세한 골드 디자인에 끌어내는 유혹의 감성과 디자인이 드물고 브리리 라인에서 XL 사이즈로 출시한 18K 엔솔 블랙 브레이슬릿 제품에 새겨진 브리리 커스텀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부쉐론 파트로 코파리트 릴 프랑스로 숫자 4를 의미하는 코파리의 네 가지 브랜드로 이이코는 스티일을 완성한 블랙 브레이슬릿 제품에 새겨진 페가수를 입어 100만원대. 득특한 유리화 공장을 통해 신작 페가수를 입어 100만원대. 브리리 커스텀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77-0148 프레스토 퍼시픽 브레이슬릿 메종의 이이코는 화이트 골드 포스텐 모티브를 브리리 커스텀으로 완성한 브레이슬릿으로, 라이버 블루 텍스사일로 이름진 스트랩을 매치해 세련되고 쿨한 감상을 전한다. 1천8백62만원. 문의 02-514-3721 블거리 비제로인 블랙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클로사움에서 영감은 과감하고 대담한 스티일이 돋보인다. 로즈 골드 소재에 가죽과 나선을 따라 스트라이프와 블랙 나일론으로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브레이슬릿을 기획했다. 1천9백90만원. 문의 02-6105-2120 사우스 주얼리 코코 크리스탈 브레이슬릿 클래식의 정인인 사내들이 만들어낸 이이코는 주얼리 컬렉션으로 한우스의 상장인 캠핑 디자인이 돋보인다. 18K 엔솔 골드로 완성해 남녀 모두 잘 어울린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티파니 티파니 T 컬렉션 T1 릴 브랜드명이자 상장인 T를 모티브로 대담하고 모방하기 딱지 않은 이들이 새겨놓은 티파니 T 컬렉션. 18K 엔솔 블랙 소재 브레이슬릿에 총 0.21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시스템에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터 성경민

# All the good Times

정교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 바쉐론 콘스탄틴. 그들만의 독창적 기술과 미학적 완성도,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을 바탕으로 오버시즈 컬렉션과 패트리모니 컬렉션에 새로운 타임피스를 추가했다. photographed by **jae yong park**

(위부터 차례대로) 42.5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두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동하는 패트리모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39mm 케이스에 감각적인 아주르 블루 컬러의 스트랩을 장착한 패트리모니 매뉴얼 와인팅 가격 미정 모두 **바쉐론 콘스탄틴**.



## 감각적인 그린 디자인

바쉐론 콘스탄틴은 2024년 워치스 & 월더스에서 오버시즈 컬렉션 최초로 감도 높은 그린 컬러의 디자인과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갖춘 핑크 골드 모델을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였다. 새로운 그린 컬러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감 기법에도 섬세함을 더했는데, 깊이감이 느껴지는 선버스트 세틴 브러싱 마감으로 우아한 품격을 강조하고, 벨벳 마감 기법을 적용한 플랜지에서는 정교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슈퍼-루미노바® 처리로 강조한 골드 아워 마커와 핸즈가 짙은 디자인 컬러와 대비를 이루면서 탁월한 가독성을 부여한다. 새로운 모델은 35mm 쟈 세팅부터 41mm 데이트, 42.5mm 크로노그래프, 41mm 듀얼 타임까지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15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장착했다. 무브먼트에는 컬렉션을 상징하는 원드 로즈를 인그레이빙한 로터를 갖추었고, 다른 오버시즈 워치와 마찬가지로 폴딩 베클로 손쉽게 조정 가능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대신 핀버클을 더한 카프 스킨 레더 스트랩이나 그린 리버 스트랩으로 교체해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 미니멀한 시계 디자인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패트리모니 컬렉션은 완만한 곡선과 심플한 라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더나티 DNA를 이어받아 패트리모니 컬렉션에서 새로운 지름, 디자인, 스트랩 컬러가 돋보이는 세 가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먼저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소재의 두 가지 매뉴얼 와인딩 워치는 어떤 손목 사이즈에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지름 39mm로 선보인다. 볼록한 디자인에 선버스트 마감한 표면과 새로운 올드 실버 톤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워치메이킹 하우스 고유의 미학을 담아냈다. 앤리제이터 레더 스트랩 또한 새로운 아주르 블루 및 올리브 그린 같은 독창적인 컬러로 선보여 컬렉션에 신선한 감각을 추가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개발하고 직접 제작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440으로 구동하며, 4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하나의 워치는 패트리모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다. 42.5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이며, 선버스트 올드 실버 톤 컬러 디자인은 핸즈 및 아워 마커에 적용한 핑크 골드와 대비를 이룬다.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인디케이션이 위치하고, 디자인 상단부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1L을 탑재했으며, 새로운 올리브 그린 컬러의 앤리제이터 레더 스트랩을 장착해 타임피스 전체에 생동감을 선사한다. 문의 1877-4306 애디티온자경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3시 방향에 날짜창을 더한 41mm 케이스의 오버시즈 셀프-와인팅,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을 표시하는 창이,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조화롭게 자리한 오버시즈 듀얼 타임, 베젤에 9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35mm 사이즈의 오버시즈 셀프-와인팅 모두 가격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 Crush on You

샤넬을 대표하는 캠팅 모티브를 심플하고도 과감하게 주얼리에 녹여낸 코코 크라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 매해 새로운 변형을 통해 컬렉션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올해 7월, 샤넬은 성수동에 새롭게 추가된 여섯 가지 주얼리를 선보이고, 컬렉션을 기념하는 코코 크라쉬 팝업을 마련했다.



샤넬이 코코 크라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 론칭을 축하하고, 코코 크라쉬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코코 크라쉬 팝업, 코코 랩은 성수동에서 진행했다. 지난 2018년 국내 첫 번째 코코 크라쉬 팝업 코코 랩 이후 6년 만에 개최한 이번 팝업은 크라쉬 라이브러리, 크라쉬 케이밍, 크라쉬 살롱, 크라쉬 라스미스 등 4개의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공간으로 구성했다. 우선 크라쉬 라이브러리에서는 코코 크라쉬 주얼리를 자유로이 시작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샤넬의 매력을 정의할 수 있었다. 여러 코코 크라쉬 주얼리를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레이어링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공간, 크라쉬 살롱에서는 코코 크라쉬 스티커로 네일을 장식할 수 있고, 크라쉬 라스미스에서는 'Crush Story'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은 자물쇠를 증정했으며, 크라쉬 케이밍에서는 코코 크라쉬 모티브의 캐릭터가 악당을 피해 코코 크라쉬 링을 수집하는 재밌고 특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또 이번 팝업은 샤넬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제공하는 익스클루시브 서비스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샤넬 코코 크라쉬 디지털 팝업에서 코코 크라쉬 주얼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고객들은 카카오를 통해 예약한 후 코코 크라쉬 팝업 오픈 라인을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주얼리를 픽업했다. 이번 팝업에는 샤넬 앤배서더 제니, 박서준과 더보이즈 영훈,



1 샤넬 화인 주얼리로 개성 있는 레이어링 스타일링을 선보인 샤넬 앤배서더 제니. 2 크라쉬 라스미스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Crush Story'라고 새겨진 구립고고 립스틱은 자물쇠. 3 거대한 코코 크라쉬 링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의 근사한 조형물이 설치된 팝업 공간. 4 총 0.85개кт의 6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멜로 베이지-화이트 골드 소재의 캠팅 모티브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스몰 링.

스트레이커즈 승민, 김소현, 전여빈, 조보아, 이재우, 공명, 최수영, 코드쿤스트, 김나영이 참석해 코코 크라쉬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코코 크라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은 1995년부터 샤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캠팅 모티브에서 영감받아 완성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매번 새로운 변형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팝업을 통해 오로지 한국에서만 먼저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여 코코 크라쉬 컬렉션의 영역을 다시 한번 확장했다. 총 여섯 가지 주얼리가 컬렉션에 추가되었는데, 우선 사각 캠팅 모티브가 새겨진 등근 표면의 링에 프롱 세팅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멜로 골드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의 베이지 골드, 그리고 심플한 느낌의 화이트 골드 소재로 선보인다.



그 밖에 다양한 미스 매치가 가능한 엘로와 베이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니 후프 이어링까지 선보여, 샤넬 화인주얼리 코코 컬렉션의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팅 유무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엘로 골드, 화이트 골드 또는 베이지 골드 소재의 새로운 미니 브레이슬릿 또한 2024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기존과 다른 특별한 점은 독자적인 인비저를 화전 장금 장치인 코코 트위스트(COCO TWIST)를 적용해 가볍게 돌려주기만 하면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링과 링, 그리고 브레이슬릿까지 더욱 다채로워지고 아름다워진 코코 커러쉬의 세계를 경험해보자.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http://www.chanel.com) 에디터 윤자경





(여자) 쿨링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5캐럿의 다이아몬드 57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스톤 이어링 3백만원대 **사설 화인 주얼리**. 캐시미어 소재의 저지 크루넥 스웨터 1백50만원대 **랄프 로렌 갤럭션**.

(남자) 18K 엘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상금 이어링 2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코코 크라쉬 스냅 링 4백만원대, 엘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미니 브로치 1백77만원대, 레이아웃 하트 1종은 사이즈에 사용한 바이저 글드로 완성한 코코 크라쉬 미니 브로치 77만원대 모두 **사설 화인 주얼리**. 100% 코튼 소재의 포켓 디자인 포플린 하와이언셔츠 1백86만원 **풀체了半天기바나**.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오픈 형태의 브레이슬릿으로 양쪽에 장식한 플라워 모티브가 고급스러움을 부각하며 총 1.1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리프 위드 플라워 팔찌선 패비 다이아몬드 뱃글 가격 미정 **그라포**. 심플하지만 총 약 1.3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19개를 정교하게 세팅해 화려한 멋까지 선사하는 패찌 셀리트링 가격 미정 **피아제**. 비대칭으로 손목을 감싸는 골드 비즈가 마치 춤추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총 2.1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엘로 골드 소재의 브륄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하우스만의 아이코닉한 세공법이 느껴지는 디테일이 특징인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크로 클래식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부띠클리비**. 여성스러움과 세련된 무드를 겸비한 부채 모티브는 카라칼라 스파의 로만 모자이크 패턴에서 영감받아 완성했다.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디바스 드림 이어링 1천8백90만원 **볼가리**.





그라프만의 월리티 높은 5.06캐럿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로 독보적인 품격을 자랑하는  
옐로 다이아몬드 솔리태어 링. 월리티 높은  
다이아몬드와 커팅 및 세팅 기술로 화려함과  
반짝임을 극대화했으며, 총 2.01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와 2.3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이온 컬렉션 페어 세트도 옐로 다이아몬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클래식하고 모던한  
느낌의 펠트 소재 코트 가격 미정 **사설**.



(위부터)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쿠션 컷 다이아몬드가  
심플하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을 전하는 솔리태어 링  
가격 미정 **쇼파드**. 사이드에는 총 0.33캐럿의 테이퍼드  
비케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가운데에는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그라프 5.05캐럿 하트 세이프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왼쪽부터 차례대로)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이드 스톤을 배치해 3개의 다이아몬드가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부각하는, 총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베로 솔리태어  
링 가격 미정 **타사카**. 총 1.19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티파니™ 세팅  
웨딩 링 가격 미정 **티파니**. 플래티넘 소재에 약 1캐럿의  
쿠션 컷 다이아몬드 17캐럿 0.5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8개를 세팅한 조세핀 애그리 플로랄  
솔리태어 링 가격 미정 **쇼파드**.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굳은 인내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물인  
페트로페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링으로, 총 0.3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페트로페 링 8백만원대 **부띠크리**.



(남자) 화이트 모드를 담은 디자인으로 경쾌한 사람의 기쁨을 표현한 포제션 컬렉션의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다. 3백60만원대 **파이제**, 장미 줄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다이아몬드 0.11캐럿을 세팅한 브아드 로즈 림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에 0.09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중앙에 세팅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1천4백만원대 **파이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3.29캐럿을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한 감성을 더한 브아드 로즈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여자)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0.58캐럿을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한 감성을 더한 브레이슬릿을 디자인한 브레이슬릿을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한 감성을 더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중央 부분이 회전하는 로즈 골드 밴드에 0.03캐럿 다이아몬드 17개를 중앙에 세팅하고 총 약 1.06캐럿의 8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포제션 링 1천4백만원대, 로즈 골드 소재에 총 약 0.43캐럿의 2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0.0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1천4백만원대 모두 **파이제**, 장미 줄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밴드로 이뤄진 브아드 로즈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여자) 화이트 골드에 아이코닉한 포스텔 모티브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미디엄 사이즈 포스텔 링 6백20만원 **프레드**, 모던한 큐브 디자인의 밴드에 0.5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스타일로 세팅한 아이스 큐브 솔리테어 7백45만원 **쇼파드**, 패버 세팅한 버클과 다이아몬드로 완성하고 케이블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화이트 브레이슬릿 1천4백20만원 **프레드**, 심볼한 밴드에 큐브 디자인으로 기하학적 디자임을 더한 아이스 큐브 뱅글 8백20만원 **쇼파드**, 남자 카리지 사이즈로 볼드한 임팩트를 준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텔 링 6백20만원 **프레드**, 별도의 짐금치 없이 착용 가능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뱅글 8백70만원 **쇼파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볼륨감 넘치는 버클이 포인트인 포스텔 브레이슬릿 XL 모델 3천만원 **프레드**.



(남자) 로즈 골드 소재에 낱장을 따라 스타드를 더하고 가장자리에는 블랙 세라믹을 세팅한 바지로와 이어링 4백80만원 **볼가리**, 맨의 가슴에 딱堑이 회전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엘로 골드 스재벨 에포크 릴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세라믹 세로줄로 포인트를 부여한 바지로와 딱堑 2백40만원 **볼가리**, 연회와 포용을 더하는 저울식 모티브의 엘로 골드 스재벨 패체 드 티파니 럭링 18K 엘로 골드 소재에 상큼하고 모던 감성을 자아낸 티파니 럭 링을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세라믹 딱喟을 더한 비제온원 럭 브레이슬릿 1천2백60만원 **볼가리**, 엘로 골드 스재벨 에포크 럭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니**, 2024 가을 겨울 신작으로 코트 포플린 소재에 가격 미정 **마르지엘라**.

(여자) 18K 엘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하프 패버 세팅해 완성한 티파니 럭 링, 엘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플러팅 패버 세팅한 티파니 럭 모드 가격 미정 **티파니**, 화이트 골드 소재에 중앙 회전밴드 양장 밴드에 다이아몬드로 패버 세팅한 벨 에포크 릴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로즈 골드 소재에 낱장을 스타드 딱喟을 더하고 강자 이미지 다이아몬드를 패버 세팅한 바지로원 럭 2백 7천4백만원 **볼가리**, 18K 엘로 골드에 롱 부팅에만 화이트 골드를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를 하프 패버 세팅한 티파니 럭 하프 패버 다이아몬드를 표장한 가격 미정 **티파니**,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에만 다이아몬드를 패버 세팅한 바지로원 럭 브레이슬릿 3천백만원 **볼가리**, 회전하는 모티브의 양장 밴드에 다이아몬드로 패버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벨 에포크 럭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니**, 2024 가을 겨울 신작으로 코트 포플린 소재를 사용해 독특한 매력을 더한 미니 블랙 드레스 6백20만원 **발렌티노**.



(여자) 팬더의 얼굴로 디자인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피부 세팅하고 눈은  
에메랄드. 코는 오느스로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이어링  
가격 미정. 사랑의 사랑을 상징하는 브랜드 아이코닉한  
핑크 골드 LOVE 브리어 슬릿 그랜트이다. 팬더를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에메랄드로 눈을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링 2천3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캐이스와 태양 광선 모드브 브리어 드 까르띠에  
화려함을 부각한 팬더 드 까르띠에 위치 가격 미정. 옐로  
골드 밴드에 오느스와 에메랄드 세팅으로 팬더의 눈과  
코를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리어 슬릿 1 천4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레이스로 상세하게 꾸준한 블랙드레스  
가격 미정 **상로왕 by 안토니 바이에로**.

(남자) 42×31mm로 한층 더 커진코리지 사이즈의 옐로  
골드 캐이스에 블루 시피어어 크로노, 실버 마감 디아얼,  
검 모노의 블루 스플릿 컨트롤 팬더 워치의 상장을 담은  
팬더 드 까르띠에에 위치 가격 미정 까르띠에에 오버사이즈  
클리어에 흥 퀸 소매가 엮어진 실루엣을 완성하는 블랙  
서초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위부터 차례대로)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섬세하게  
번쩍이는 화이트 마더오브펄로 우아한 품격을 더한  
다이얼이 특장이다. 베젤과 러브레이는 76개, 크리온에는  
17개 리온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리비아시계  
파페수얼 클론더 몰트라-센 1억3천5백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각 0.19캐럿의 7개 무브먼트가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실버  
칼라의 기묘세 패턴을 디자인에 입혔으며, 로마자  
인덱스가 묻보이니 해피 스포츠 7천5백만원 **쇼파드**,  
33mm 스틸 골드 케이스에 마더오브펄 디얼의  
조회가 어스스러우면서 은은한 무드를 자아낸다. 1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불가리  
불가리X러시 위치 1천4백30만원 **불가리**, 39mm  
케이스에 총 1백42개 화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여기에 디아얼에도 무려 4백31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영롱함을 선사한다.  
50시간 피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HUB1710 셀프 워킹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스피릿 오브 브륀 월리크 김골드  
화이트 주얼리 9천74만원 **워블로**.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락 이어링 1천4백30만원 **불가리**. 로즈 골드 소재의  
밴드 27개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의 마력적인 투게더  
링, 총 0.47캐럿의 36개 화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포렐리오**. 지름 38mm  
모나인™ 골드 케이스에 5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게 장식한 크로노그레프 위치 스피드스터  
6천4백만원대 **오메가**. 은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블랙  
제킷 가격 미정 **자방시**.





(위부터 차례대로) 독일 럭셔리 모노그라피 브랜드 브루노스와 협력해 탄생한 칸스콜랫론 워치로 브러시드 에코 터보 47mm 케이스가 날렵한 강철함을 보여준다. 3시 방향엔 날짜창, 9시 방향엔 30초 세컨즈가 위치하며, 무려 39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기계식 P.4001/S 칼리버를 장착한 남자용 S 브루노스 에터나이™ 7선 백금원대 파네라리 총 약 0.5kg정도의 9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세자로 41mm 케이스가 깨끗하고 도회적인 무드를 배여준다. 자체 제작 910P 울트라-신기계식 셀프 워킹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일티풀러노 워치 가격 미정 피아제 총 1백72개 화이트 커터이온드를 세팅한 터보 45mm 케이스가 시선을 끌어모으며, 셀프 워킹 크로노그래프 플레이 백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를 탑재한 상블루 II 터보 파비 7천750만원 위블로. 18K 화이트 골드 40mm 케이스를 갖추고, 손으로 완성한 연진 터닝 홀비알(hobnail) 패턴이 12시 방향 실버드 골드 커터이온드의 매력을 부각하며, 10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스물 세컨즈를 더한 브리게트리디션 오토매틱 세컨드 레트로그레이드 7097 5천6백34만원 브레게.



(인쪽부터 차례대로) 6시 방향의 특허받은 대형 날짜창과 0.007초 만에 구현되는 즉각적인 대형 날짜창 점프가 특징이다. 42.5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갖추었으며, 약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파슬리 빅 디아트 플리미 1천9백43만원 제니스. 40mm 5N 18K 로즈 골드 케이스가 블러셔한 느낌을 전하는 동시에 은은한 프로스테드 살비 컬러 디자인이 차분한 무드를 부각한다.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헤우스 독점 칼리버 L844.5를 장착한 루진 미스터 쿠리에 GMT 2천1백90만원 룬진.

골드&브리은 PVD 소재가 아우러져 대조적인 실루엣을 선사하는 쿠트로 클래식 라지 웨딩 밴드 4백만원대 부쉐론. 1950년대 프랑스 공군을 위해 고안한 터보 칼리에에서 영감받은 위치로 42mm 스틸 케이스에 최고급 민간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한 티업 XX 크로노그래프 2067 3천1백80만원 브레게. 탄탄한 소재와 각각한 어깨 라인으로 테일러링의 진수를 보여주는 2024 가을 컬렉션 남성 블랙 재킷 4백10만원 발렌티노.

모델 디자, 워JS MODEL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름  
어시스트트 김민민  
에디터 성정민, 윤자경



샤넬,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www.chanel.com  
그리폰 02-2150-2320  
파이프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소메 02-3442-3359  
부체보티 02-3440-5613  
풀기리 02-6105-2120  
소피드 02-6905-3390  
타시카 02-3461-5558  
티파니 1670-1837  
프로드 02-514-3721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마이애니 02-515-1926  
까르띠에 1877-4326  
포传授토 02-3143-9486  
비에른 콘스탄틴 1877-4306  
오메가 02-6905-3301  
파샤카이 02-670-1936  
위로 02-540-1356  
브리에 02-6905-3571  
제니스 02-3479-1805  
룬진 02-3479-1940  
부쉐론 02-6905-3322  
힐즈 로렌 컬렉션 02-3467-6560  
풀체보티 바나 02-3442-6868  
YHC 02-798-6202  
메종 마르지엘라 02-3107-8061  
발렌티노 02-3415-4655  
상로워 by 인트니 바이 켈로 02-545-225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자체시 02-546-2790



# Step to Shine

깔끔한 실루엣에 심플한 포인트를 갖춘 멘 드레스 슈즈 7.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온라인 쇼핑몰) 둘근 디자인과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스티드 디테일의 조합이 영한 감성을 선사하는 릭스터드 로퍼 1백53만원 **밸렌티노 가리비나**, 문의 02-2015-4655. 우아하고 슬림한 디자인의 블로버, 100% 보크상 가죽 커프 스키 으로 제작하고 로고를 새긴 골드 도금 커프 침금부를 더한 브리泞 커프 2.5인 로퍼 1백57만원 **풀체인 가리비나**, 문의 02-3442-6888. 유연한 레더 소재로 제작했 으며, 하우스의 시그니처인 허스처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훌스비 블랙 모던 1백48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일코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특징으로, 송 이지기죽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도베르 가죽 미정 **페라기모**, 문의 02-3430-7854. 우아한 편안 미감이 수준의 매교운 테이트 디자인에 성을 불어넣으 며, 애-캡 트리아ング글 로고 장식이 특장이다. 신을 때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페라노트 가죽 슬립온 슈즈 1백43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클래 쇼한 실루엣이 단정하면서도 도화적인 멋을 자아내는 자이니 레이스업 캡 토 가죽 미정 **풀 포드**, 문의 02-6905-3534 에디터 **윤자경**



# Perfect Weekend

즐거운 주말, 교외로 나설 때 이 가방이면 충분하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춘 위켄드 빅 백.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온쪽)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골프장에서 영업은 걸리기 클래식하면서 대襟한 매력을 자아낸다. 구르하이드 가죽 소재의 밴드와 상단 핸들로 아이코닉한 슬루엣을 강조한 기존 반둘리에 50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한 면은 페번 스트리아파 모도브의 리트로 블루 컬러 카드 패드백, 다른 면은 아이코닉한 FF 모도브로 이루어진 리버스를 디자인의 특징인 라지 헤드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행운 컬러링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원충장치가 달린 흑미 베어링을 장착 한 퀼 턱팅에 인정하고 판면한 음작음을 보장한다. 퀼리브네이트 소재의 리모와 애센셜 트렁크 플러스 파파야 1백96만원 **리모와**, 문의 02-546-3920. 촉감이 부드러운 레더 소재와 소지품을 바로 까낼 수 있는 외부 포켓 조각이 징정인 소프트 미디엄 더글백 2백86만원 **몽클레어**, 문의 1877-5408. 시그니처인 스트리아파 웨빙이 스포티한 무드를 더하고, 전면의 로고가 심플한 멋을 배가하는 로고 프린트 인조 가죽 보스턴백 흑이트 58만원대 **보스**, 문의 02-2210-5154. 하우스의 아이코 닉한 디젤 G 패턴이 물보이이며, 가방 내부가 깊어 무난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월 디테일의 GG 수프림 미디엄 더글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521. 전면을 시그니처 로고로 은은하게 장식해 멘디한 멋을 부여하는 블랙 헥시 디올 오리지널 카드 위켄드 40 백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 Editor's Pick

## 휴가철에도 놓칠 수 없는 피부 관리. 13가지 예세션한 브티테이크 시작해보자.

photographed by **oh hyeun sam**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봉시 로즈 페인트 N554 스피클링 컬링크** 메이크업할 때는 물론이고 만년도에 가볍게 비를 수 있는 내수릴 글로 립을 연출하는 립밤이다. 브르자마자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고 맑은 컬링크 컬러에 미세한 펄을 험유해 화사하고 입체감 있는 립을 연출한다. 또 하루부론산, 비타민 C 등을 험유해 입술이 건조하거나 것을 방지해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된다. 2.8g 4만9천원대.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윤자경

시나봉다젤리 썬니 캐터일 마치 젤리같이 탱글하고 불투명한 제형으로 바르는 즉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기분좋은 텍스처가 일품. 버지마지자 시원하게 느끼자는 클리어 효과로 지워선에 지각받은 보디 피부를 정진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향긋하고 푸르른 시한 향이 지친 삼심을 리프레시해주기까지 한다. 20ml 5만원. 문의 1833-6766  
by 에디터 성민진

페루피 너리싱 크림 프랑스에서 생산되며 비건 인증을 받은 이 크림은 캐마일, 쑥  
파시 플로로 성분을 담아 피부에 난 웃긋불긋한 트러블을 진정시키며,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준다. 비르는 순간 은은한 이로마 향이 올리와 편안하게 느껴졌고, 알고 거울에  
버운 텍스처라 사계절 내내 자주 사용할 것 같다. 50ml 6만5천원, 문의 02-543-  
5317 \_by 에디터 신정임

시슬리 에Emily 씽 애플로지끄고 어드밴스드 포뮬라 시슬리의 대표 제품인 애Emily 씽 애플로지끄고 애Emily 앤더슨에서 애Emily 앤더슨과 함께 해 죽제 분위기의 디자인으로 랜턴 무늬로 장식한 리미티드 에디션 디자인을 선보인다. 행복, 건강, 번영 등 행운에 대한 희망을 밀어 하늘로 날리는 등 모양을 본뜬 그림이 특징. 애프터 선 케어를 고민하는 할 시기에 선물 아이템으로도 적절하다. 125ml 34만원. 문의 080-549-0216  
*by 애디티 장지윤*

에어 애센셜 리제스터레이터 숨을 사용해 성장하는 뮤티 브랜드 에어에서 국내 최초로 항노화 원료 NNMN이 들어 있는 핸드크림을 출시했다. 꾸준히 사용해보니 주름 개선은 물론 미백 기능까지 더해 손은 탄력 있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평상시 손을 자주 씻고 향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50ml 3만2천원. 문의 070-8080-1447 *by 에어/리제스터레이터*

디올 뷰티 디올 포에버 스킨 퍼펙트 스틱 ON 이 제품을 만나고 출근 준비 시간이 확 줄었다.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피부 결정과 나비에 띠는 모공을 깨끗이 치워주는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워터프루프 효과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춰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무너짐 없이 선명한 컬러감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10g 9만1천원 대. 문의 080-342-9500\_by 디올 뷰티

사설 자정 0마리내로 블러셔 & 하이라이터 듀오 라이트 앤 베리 매트 푸크사야 꼬풀과 필회이트를 살짝 겹친들인 핑크 라일락 컬러를 헤어에 담아 고민하지 않은 생생한 컬러 연출하기에 적합한 더얼리 치크 인상템. 더운 여름 기볍고 신뜻한 스킨케어에 직후 더 무리하는 느낌으로 양 볼과 이마에 살짝 사용하고 있다. 8g 8만5천원, 문의 080-508-9638, [www.chanel.com\\_by](http://www.chanel.com_by) 에디터장리운

풀리조이스 스킨 발달상 포어-리듬링 토너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이어 템으로 진여 노폐물은 물론 피부 속 숨은 피지까지 잡아 치운 데다가 기부주의 '수부지' 피부를 용 토너다. 브랜드의 판매 1위 제품으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 이어 템이다. 무엇보다 일코울프리 포뮬러가 신뜻하고 청정한 사용감을 주며, 예민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355ml 5만7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파리](#) 또는 [ediparis.com](#)

비아페도 아이씨에도우 5 칼리스 데저트 로드 모하비 고스트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매 이크업 리안에서 선보인 아이씨에도, 포인트로 바르기 좋은 웈 톤의 샌디 핑크부터 베이스로 제작인 살구끼리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했으며, 강렬한 느낌을 기미해 여름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 좋다. 6g 12만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신정임

모로카오일 사워제리 달리아 루즈 기준 모로카오일 사워제리 인에 새로운 향이 추가된다.  
달리아 꽃잎과 펄 월하향, 산들우드의 마스크 학 조합으로 우아하고 매혹적인 풍미로  
로열 향과 함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향을 선사한다. 고농축 포뮬러가 적은 양으로도  
풍성하고 조밀한 가품을 만들어 깨끗한 세정은 물론 턱일한 보습 효과까지 선사한다.  
250ml 2만9천원 문의 1666-5125\_by 에디터 성장민

**딥티크 알리오 리퍼메싱 프리그린스 스프레이** 휴대가 간편한 일코일포리 리퍼메싱  
페이스 & 보디 미스트로 후드지근한 여름에 지친 몸과 피부, 기분을 활기차게 할 때  
격. 콤팩트한 사이즈와 뛰어난 분사력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뿌려주면 시원하고  
쾌하게 기분 전환할 수 있다. 요즘 에디터의 피우치 필수템. 100ml 7만7천원. 문화  
02-3446-7494. [by 에디터 성장민](#)



# Radiant Scents

한 여성으로서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가브리엘 샤넬. 그녀의 인생을 넘어 그녀 자체를 담은 매력적인 향수, 가브리엘 샤넬에서 더 산뜻한 스파클링 프루티 플로럴 향의 신제품, '가브리엘 샤넬 로(L'EAU)'를 선보인다.

샤넬은 2017년 자유로운 한 여성으로서의 가브리엘 샤넬 자체를 향으로 표현한 새로운 향수인 가브리엘 샤넬 오 드 빠르펭을 선보였다. 가브리엘 샤넬은 샤넬 향수에서 늘 사용하는 원료인 일랑일랑과 자스민을 사용했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정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라며 당당히 말한 가브리엘 샤넬을 표현하고자 한 것. 따라서 향수 가브리엘 샤넬의 향 역시 모든 인위적 기교를 없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샤넬의 정통성을 보여준다. 이는 향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에도 표현된다. 보틀을 잡는 순간 아주 얇고 간결한 유리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샤넬은 이렇게 아주 얇고 정교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거의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폴리싱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폴리싱한 사각 보틀 덕분에 마치 패키지 밖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듯 묘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보틀에서 바닥 안쪽에 생기는 곡면을 제거해 간결해 보이도록 설계했다. 이 모든 것이 하례허식을 던져버린 진취적 여성으로서 가브리엘 샤넬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 가브리엘 샤넬의 눈부신 색채를 담다

샤넬은 올 7월 또 하나의 가브리엘 샤넬 향수를 탄생시켰다. 가브리엘 샤넬 로(LEAU)는 개성과 의지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빛나는 여성을 위한 향수로 이전 가브리엘 샤넬 빠르펭과 가브리엘 샤넬 에쌍스에 이어 가브리엘 샤넬 라인의 눈부신 색채를 새롭게 해석했다. 이 역시 산뜻하며 풍성하게 퍼지는 스파클링 프루터 플로럴 향으로 열정적이며 자유로웠던 가브리엘 샤넬로부터 영감받아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태양처럼 빛나는 여성에 대한 찬사를 표현했다. 이국적이고



가브리엘 샴페인 향수 컬렉션에서 새로 출시한 가브리엘 샴페인 향수로 (LEAU) 50ml 19만3천원, 100ml 27만3천원. 2 가브리엘 샴페인 향수로 (LEAU)와 이전에 출시했던 한층 여성스럽고 관능적이다. 가격은 100ml 19만3천원, 25ml 12만3천원, 50ml 19만3천원, 100ml 27만3천원.

강렬한 자스민, 생동감 넘치는 프루티한 향이 매력적인 일상일랑, 신선하고 반짝이는 매력의 오렌지 블라썸,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그拉斯 튜베로즈를 포함한 네 가지 핫이트 플라워의 향기를 조합해 완성했다. 특히 어떤 꽃보다 매혹적인 그拉斯 튜베로즈는 싱그러운 식물의 신선함을 그대로 읊겨놓은 듯한 향으로 가브리엘 샤넬의 우아한 매력을 대변한다. 패키지는 기존의 가브리엘 샤넬 향수와 같은 정교하고 섬세한 유리 보틀로 완성했다. 컬러는 진귀한 장밋빛 베이지 골드 컬러로 발현되며 투명한 4개의 면이 빛으로 가득 찬 향수의 매력을 그대로 별산한다. 보틀 중앙의 라벨과 스토퍼는 짙고 풍부한 골드 컬러로 마무리해 가브리엘 샤넬의 미학 코드를 새김으로써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처럼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여성을 위한 향수다.

## 가브리엘 샤넬로 완성하는 향 리추얼

샤넬은 가브리엘 샤넬의 라인을 다각화해 샤넬 향수를 사랑하는 이와 진취적인 가브리엘 샤넬을 닮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소장 욕구와 향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먼저 향수는 골드 문으로

엘 샤넬 라인의 탄생과 동시에 출시한 첫 향수, 가브리  
오 드 빠르펭은 첫 향수인 만큼 가장 순수한 가브리  
의 향을 표현한다. 모든 라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  
일랑, 자스민, 오렌지 블라썸, 그拉斯 투베로즈를 활  
성적인 화이트 플라워 향을 적절히 조합해 마치 태양  
금은 듯한 본연의 플로럴 향을 제공한다. 3년 뒤에는  
엘 샤넬 에씨스라는 또 하나의 신제품으로 향의 레인  
혀갔다. 가브리엘 샤넬 에씨스는 한층 더 여성스럽고  
향으로 탄생했다. 톱 노트에 시트러스와 레드 베리의  
느낌을 추가하고 샌들우드,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  
스 노트로 관능적인 느낌을 더했다. 패키지 또한 한  
따뜻하고 깊어진 골드 컬러로 완성했다.

엘 샤넬 향수를 좀 더 은은하고 다양한 형태로 즐길  
록 한 헤어 미스트와 바디 크림도 주목할 만하다. 휴  
편한 사이즈의 가브리엘 샤넬 헤어 미스트는 머리에  
리거나 브레이시에 뿌려 좀 더 은은한 플로럴 향을 즐길  
다. 크리미한 텍스처가 일품인 고급스러운 바디 크림은  
엘 샤넬 특유의 플로럴 향과 태양 빛을 머금은 듯 따  
풍부한 잔향으로 목욕 후 감각적인 터치를 선사한다.  
매기지처럼 반투명한 유리의 정사각형 용기에 반짝이  
캡을 더한 디자인은 더욱 특별한 감성을 전한다.



1FF 로고와 화트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스크루 피티사이 공간을 통해 신제품 디자인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순수한 분위기를 더했다.  
2 판타지 디자인 컬러감이 돋보이는 베드.  
3 친환경 디자인과 구수다운 충전재 활용한 자연스러운 블루감이 대비를 이루는 소호프트(Soho).

펜디 까사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비아 벤투리니 펜디가 하우스의 비전을 바탕으로 독특함과 영동함이라는 색 다른 요소를 추가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벤투리니 디자인은 펜디의 비전과 콘트로벤토(Controvento)의 기술력을 결합해 FF 로고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이번 뉴 컬렉션의 제품을 더욱 둘보이게 했다. 3차원 형태로 렌더링한 콘트로벤토의 새로운 모듈형 소파, 펜디 F-아페어(Fendi F-Affair)부터 토안 응우엔(Toan Nguyen)이 선보인 바 있는 소호(Soho)의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완벽한 모듈러 디자인과 텍스처일 버전 옵션을 추가한 소호프트(Soho), 몸을 포용해 감싸주며 지극히 편안한 감각을 선사하는 레이지 오타비아(Lazy Ottavia)까지 다채로운 구수 라인을 선보였다. 또 마르코 코스탄자(Marco Costanzo)의 벨룸(Velum) 램프가 플로어 램프, 테이블 램프 또는 독서등, 두 가지 버전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진화하는 스타일에 대한 연구와 아이코닉한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 완성한 새로운 컬렉션으로 차별화된 펜디의 리아이프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



팔라완의 진주 아만풀로(Amanpulo)

# divinely serene

섬을 통째로 '보금자리'로 삼는 아만풀로(Amanpulo)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라완(Palawan)의 보석 같은 리조트다. 정확히는 팔라완 북부 쿠요(Cuyo) 군도의 산호초로 둘러싸인 파밀리칸섬(Pamalican Island)에 자리하는데, 프라이빗 경비행기로만 오갈 수 있다.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저공비행을 하면 가뿐히 도착할 수 있는데, 마치 알라딘의 마법처럼 그 짧은 이동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펼쳐진 5.5km의 고운 해변을 끈 바다는 투명에 가까운 맑음을 품고 있고, 연한 청록색을 비롯해 말로 형용하기 힘든 아름다운 색채의 스펙트럼을 뽐낸다. 게다가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바다라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로 '멍 때리기'나 명상 무드에 돌입하게 해준다.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의 이름이 찰떡궁합인 섬이다.

'아만(Aman)'이라는 브랜드가 럭셔리 여행에 조용하게 자작변동을 일으키던 초기인 1993년 문을 연 아만풀로(Amanpulo), 요즘은 도심형 리조트로 선보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만은 대중교통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인적 드문 외딴섬이나 사마 같은 대자연 속에 호젓하게 자리 잡는 걸 고수했다. 그러나 7천6백여 개 섬으로 이뤄진 커다란 군도의 나라 필리핀에 리조트를 열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랄지 않다. 많은 섬 중 이만이 택한 파밀리칸섬(Pamalican Island)은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3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닐라 나노이 아카노 국제공항에 내리면 별도의 격납고를 갖춘 인근 라운지에서 출발하게 된다. 14인승의 양 중맞은 프라이빗 제트기(파트너 운용사는 IAI)를 타고 파밀리칸섬으로 향하는 1시간 남짓한 여정은 그 자체로 예쁜 추억이 될 수 있다(줄지만 않는다면). 저공비행이라 하늘길에

서 담을 수 있는 풍경은 커다란 풍선이라도 타고 두둥실 날아다니며 세상 구경하는 듯한 설렘을 안겨준다. 풍물봉실 떠 있는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 냉어리들은 하늘 위 또 다른 세상을 이루고 있고, 알록달록한 지붕을 드는 집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빨강, 초록, 파랑의 작은 보석들을 바고 그 주위엔 금테를 두른 레고랜드를 떠올리게 한다.

## 구름길을 지나 만나는 또 다른 세상, 기다랗게 펼쳐진 보석 같은 섬, 파밀리칸 아일랜드

신기하게도 파밀리칸섬에 다가갈수록 밀도 낮은 들판들 성한 느낌의 구름들이 사이에 들어온다. 원근법이 고장 난 듯 얕게 깔린 구름 위로 배가 다니는 느낌의 풍경이 재미나다. 이후로 기다란 섬을 따라 날선하게 뻗은 배사장이 보이고, 경쾌하게 칙칙한 헐주로 옆에는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며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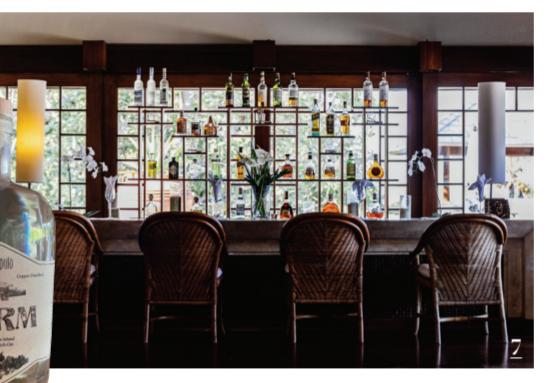
만풀로식 환영을 해주는 직원들을 마주한다. 7, 8월은 비가 자주 온다지만 날씨의 요정이 비호해준다면 퀘팅한 하늘에 잔잔한 바다, 그리고 구름 간지럽히는 듯 상쾌한 바람도 만날 수 있다. 밤에만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끔하게 갠 날씨를 접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운 좋게도 이런 복을 실제로 누렸지만, 그래도 여름 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기 권한다). 어차피 외출을 줄이더라도 아만의 자연 속 리조트들이 대개 그렇듯 숙소에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식도락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섭렵할 수 있다(화티 피자 주문도 가능하다). 아만풀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숙소가 있는데, 하나는 현지어로 '작은 집' 뜻하는 카시타(casita)로 기준 인원이 2명(최대 3명)이다. 이 범주 내에서도 해안으로 가는 전용 길이 있는 '비치 카시타', 숲에 자리 잡은 힐사이드 카시타나 '트리톱 카시



타',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풀진지 풀까지 갖춘 업그레이드 형 카시타도 있다. 좀 더 인원이 많다면 주방과 전용 세프 겸 집사까지 대동하는 프라이빗 빌라도 있다(18채만 있다). 아만풀로가 추구하는 여러 퍽 목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꼽는다면 독립성이다. 예컨대 카시타 내의 욕실은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과 헛살이 들어오는 창, 넉넉한 욕조와 원형 턱자까지 놓인 또 하나의 방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출할 때도 객실마다 제공하는 깜찍한 미니카를 타고 다니면 되므로 이동이 자유롭다. 간단히 페달로 작동하는 이 전용 클립 차량은 '장롱 면허'를 가진 필자도 노련한 드라이버가 된 듯 섬을 탐색하고 다니도록 도와준 고마운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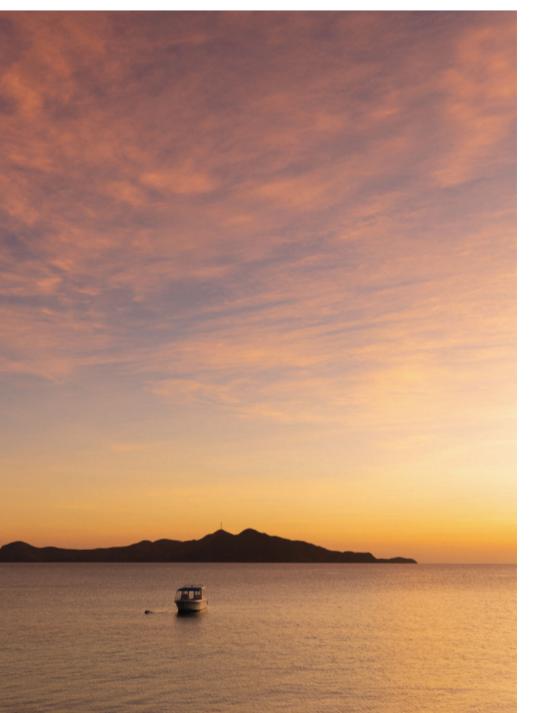
##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지만, 어느덧 스스로 찾고 즐기도록 만드는 마법

수려한 자연에 둘러싸인 수십 채 숙소와 부대시설만 존재하는 85ha의 섬에서 '밀도'를 느끼기는 어차피 힘들지만 아만풀로의 평온한 독립성은 야외 활동에서도 빛을 발한다. 카약, 패들 보트, 스쿠버다이빙, 세계적 수준의 카이트 서핑 등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워터 스포츠는 물론 테니스, 풋살, 요가 등의 활동은 저마다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저 조용히 바다 위에 유유자적 뜬 채 독서나 음악 감상, 명상에 몰입하는 데 적격인 '카와얀 바(Kawayan Bar)' 경험이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카와얀은 현지어로 '네나무'라는 뜻의 단어. 유연하고도 강한 대나무로 만든 물 위의 뗏목 같은 휴식 공간은 필리핀 원주민들이 수공 기술로 만드는데, 바라는 명칭으로 알 수 있듯 손님의 허리를 달래기 위한 간식에 걸들일 맛난 카테일을 제조해주는 바텐더가 함께 텁승한다. 유난히 맑은 데다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우울한 느낌은 들지 않는 청신한 바다 풍경을 '독대하고 있노라면 명상적인 분위기로 이끌리게 된다(단체로 15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육지에서 속서 삼매경에 빠지고 싶다거나 로열의 정수가 물어나는 필리핀식 다파와 함께 애피타운 티를 즐기고 싶다면 클럽 하우스의 라이브러리로 향하면 된다. 아만풀로에는 올데이 다이닝이 가능한 비치 클럽, 신선한 재료와 세프의 솜씨가 입안에서 바로 느껴지는 일식 요리가 일품인 라운 클럽 등 의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 근시한 서재와 올데이 미식 공간, 부티크,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아주 중요한) 냉방 시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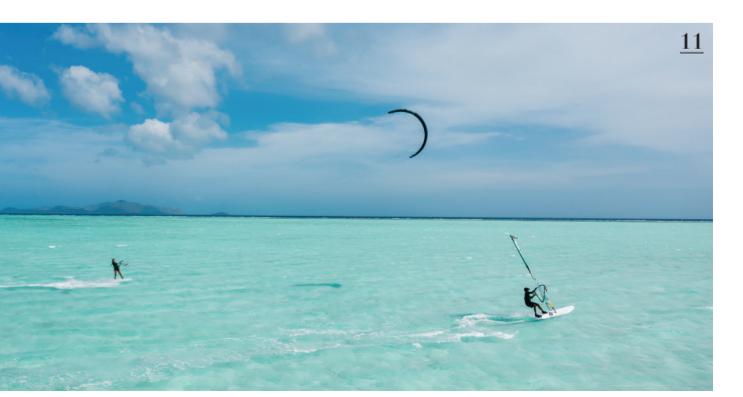


갖춘 클럽 하우스는 섬 내 여러 시설을 오가다 들를 만한 전천후 플랫폼이다. 저마다의 매력이 넘치지만 독특한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동쪽 해변과 서쪽 해변이 있기에 일출과 일몰을 생각해 동선을 짤 필요가 있다. 신기한 점은 어느 쪽 해변이든 오묘한 청록빛 바다를 눈에 담아두고 있노라면, 굳이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도 결국 '워터 스포츠'에 도전하게 된다.

그런데 파밀리칸섬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바다 풍경을 기만히 응시하다 보면, 늘 시야에 들어오다가 언젠가부터 일종의 미스코트처럼 각인되는 아트만한 섬이 하나 있다. 보트를 타고 가면 4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나목(Manamoc)섬이 디아일리안의 주도인 푸에르코 프린세사에서 페리로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멀다. 아만풀로 스태프 중 상당수는 마나목 출신이다(인근의 작은 섬들 출신까지 합치면 60~70%). 지역 주민들이 많이 타는 작은 목선으로 출퇴근하는데, 마나목에는 호텔 일을 배우거나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파밀리칸섬의 소유주이기도 한 앤드레스 소리아노 그룹(Ansoc)이다(재단에서 운영한다). 아만풀로의 한 젊은 직원은 자신의 중조부와 그 동료들이 소리아노 가문에 마나목을 팔았다는 얘피소드를 들려줬다(무려 반세기도 더 된 얘기다). 농담조로 "아, 팔지 않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하자 놀랄지도 그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그랬다면 아만풀로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했다. 천성이 긍정적이고 따뜻한 필리핀 사람들이 지난 삶의 태도가 '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필자에게 복잡다단한 감정으로 다가오게 하는 대답이었다. 그렇지만 '자꾸 돌아오게 되는 곳'이라는 뜻을 자랐다는 이 아름다운 섬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긍정성이기도 했다. 글 고성연(파밀리칸, 마닐라 현지 취재)



1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아만풀로의 수려한 바다와 백사장 풍경. 2 바다 위에 뜬 천막을 즐겼다 수도하고 목사나 음악 감상, 명상에 몰입하는 데도 적격인 카와얀 바. 3 언덕 위에 흐릿하게 자라해 비단과 술을 유르는 빼난 전망을 갖춘 스파. 4 간단히 배틀과 버튼 등으로 작동하는 클럽 전용 차량. 개설보다 10년째 제공된다. 5 아만풀로에는 술과 바다 등을 선별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데크 캐비닛 있는데, 독립성을 배우한 새롭은 디자인 헬링이 느껴졌다. 리조트 전통을 필리핀의 저명한 건축가 프란시스코 아스카가 설계했다. 6 낭만적인 해변에서의 피자나 풍경. 웨이아나 축복 악을 비롯해 각종 향기를 즐길 수 있다. 7 칼브란시 같은 앤디 고향으로 활동하는 아트의 바에는 저찌와 흔주도 커다란 있다. 8 일몰의 장면을 만끽하기 좋은 바자 클럽의 디아일리안. 9 아만풀로 스태프 중 상당수가 주주인 앤드레스 소리아노 그룹이 이 섬에 가서 자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10 산호초에 둘러싸인 파밀리칸에서 수백 년 된 거목이 옆에서 향해되자 함께 해장을 자거나 자자볼 수 있다. 11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청록빛 아일랜드 해변. 자연의 조경에 따라 그 조경 내에서 펼쳐지는 스페셜 풍경이다.



# Be Unique

컬러와 프레임, 사이즈가 남다른 선글라스로 완성하는 유니크한 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시스트립 김보민

## BEAUTY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현대적 디자를 담은 독특한 스퀘어 세이프와 브리온 그레이던트 렌즈가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체니 글리터 02 선글라스 40만원, 선글라스 다리에 끼워 개성 있는 연출을 도와주는 침 에르 M 2인3천원 모두 **챈들리스터**, 문의 1600-2126. 플로팅 터토이즈셀 사출 프레임에 에이비아이터 세이프로 빙단지하고 글라식한 매력을 선사하는 아밀리아 선글라스 가격 미정 **로랑 by 앤토니 바카렐로**, 문의 02-545-2250.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 캐주얼 스타일이 돋보이는 라운드 판토 세이프의 메탈 선글라스 35만5천원 **미스마라 by 디케이**, 문의 02-717-3990. 독특한 육각형 프레임과 라운드 컬러 렌즈가 유니크함을 선사하는 선글라스 19만천원 **에이프 by 애슬로록스토리**, 문의 02-501-4436. 화이트 컬러의 볼드한 커즈 앤이 오버사이즈 프레임이 착용하는 순간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어줄 스펙트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부드러운 곡선의 테가 독특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의 초경량 선글라스 71만원대 **프라다**, 문의 080-522-7199. 복고적인 느낌을 풍기는 와이드한 프레임에 라이트 핑크 컬러와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미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 SHOWROOM

## JEWEL &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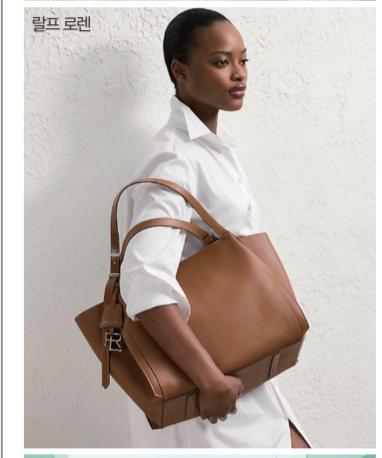
**바쉐론 콘스탄틴** 에제리 문파이즈 워치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에제리 문파이즈 워치를 제작한다. 18K 5N 핑크 골드 소재를 사용하거나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더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18K 5N 핑크 골드 소재 버전은 3개의 교체 가능한 레더 스트랩을 제공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태그호이어** 아쿠아리아 프로페셔널 300 & 아쿠아리아 프로페셔널 300 GMT 출시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태그호이어가 새로운 아쿠아리아 시계를 선보였다. 방파 모양으로 완성해 기사성을 높인 핸즈와 디자인에 파도의 물결 패턴을 더한 아쿠아리아 프로페셔널 300,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으로 제작한 튜튼 베젤에 24시간 GMT 스케

일을 적용해 낮과 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아쿠아리아 프로페셔널 300 GMT 등 2가지로 출시했다. 문의 02-548-6020

**브레게** 브레게 뮤지엄 작품전 개최 브레게가 지난 4월 뉴욕을 시작으로 브레게 뮤지엄 소장품을 전 세계 주요 브랜드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7월 18일 신세계 강남 브레게 부티크에서 '디스플레이의 미학(The Art of Display)'이라는 주제로 첫걸음을 보였으며, 9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문의 02-3479-1008

**불링팡** 피프티 패밀리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공개 블링팡이 피프티 패밀리 컬렉션에서 새로운 모델 바티 스키프 컬렉션 칼리더 문파이즈를 선보였다. 블루 컬러 디자인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풀 세리미를 사용해 브레이슬릿과 케이스를 제작했으며,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79-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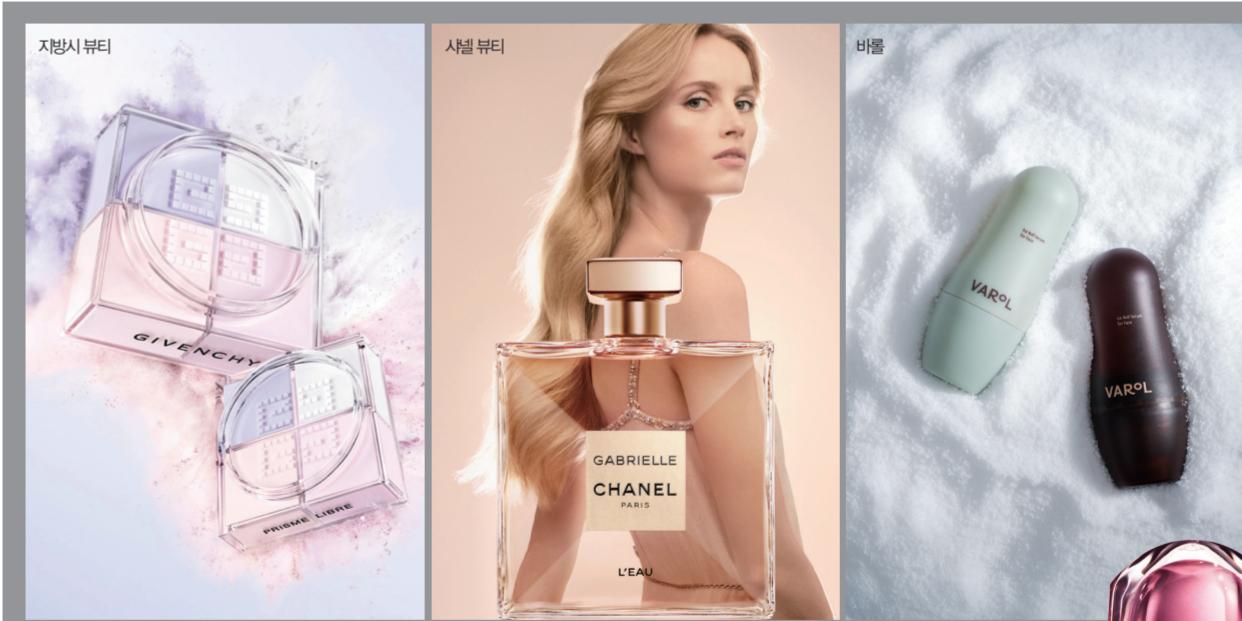


**로로피아나** 2024 F/W 광고 캠페인 공개 이탈리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2024 F/W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베이비 캐시미어, 비누나, 소프라 비스, 페코라 네리®, 체리엇 등 다양한 소재와 브랜드의 상징적인 양검 퀴 꽃 모티브가 조화를 이루며, 1백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로로피아나의 타임리스한 무드를 담아냈다. 문의 02-6200-7799

**디올** 디올 그루브 백 디올에서 2024~25 F/W 레 디투웨어 컬렉션을 위해 디자인한 디올 그루브 백을 출시했다. 캐주얼하면서 세련된 보스턴 형태의 디자인이 돋보이며, 골드 컬러 지퍼소와 크리스탈 다클이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던 별 모티브를 더한 키링으로 구성했다. 탈착 가능하고 같은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핸드백 또는 숄더 및 크로스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리모와** 오리지널 컬렉션 에메랄드 컬러 출시 인목 높은 여행자들이 믿고 찾는 리모와에서 시즈널 컬러를 다양한 오리지널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였다. 기존 오리지널 컬렉션의 캐빈, 체크-인 L, 트렁크 플러스 등 3가지와 일부 미倨 소재의 퍼스널 크로스 보디 백을 천연석인 에메랄드를 모티브로 한 그린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랄프 로렌** RL 888 카프 스킨 토크백 랄프 로렌은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에 위치한 랄프 로렌의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는 RL 888 라인에서 RL 888 카프 스킨 토크백을 출시했다. 2개의 카피로 모인트를 준 조절 가능한 상단 핸들 2개, 탈착식 지퍼우치, 시그니처 'RL' 모노그램 침으로 구성했으며, 최고급 송이자기죽을 사용해 세련되고 우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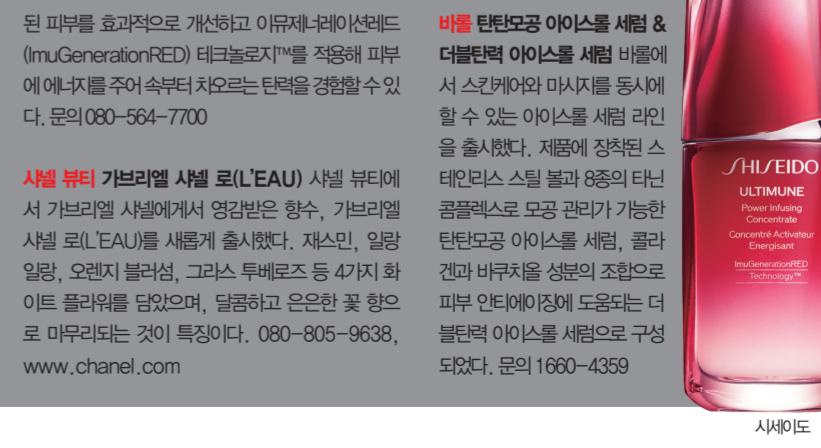


**자본시 뷰티** 프리즘 브리즈 투스파운더 자본시 뷰티에 서은은한 광채와 매끈한 광택을 연출할 수 있는 프리즘 라이브 루스 피우더를 제작한다. 꽃가루처럼 가벼운 포뮬러로 실크처럼 부드러운 광택과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월분부터 클론까지, 다양한 피부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컬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564-7700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넬 로(L'EAU) 샤넬 뷰티에서 가브리엘 샤넬에게서 영감받은 향수, 가브리엘 샤넬 로(L'EAU)를 새롭게 출시했다. 재스민, 일랑 일랑, 오렌지 블러싱, 그린 토ベ로즈 등 47가지 화이트 플리워를 담았으며, 달콤하고 은은한 꽃 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080-805-9638, www.chanel.com



**비비 텐타모공 아이스를 세럼 & 더블탄력 아이스를 세럼** 바롭에서 세럼과 미사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스를 세럼 라인을 출시했다. 제품에 장착된 스테인리스 스틸 볼과 8종의 타닌 품질로 모공 관리가 가능한 탄탄모공 아이스를 세럼, 콜라겐과 비쿠치를 성분의 조합으로 피부 안티에이징에 도움되는 더블탄력 아이스를 세럼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1660-4359



## FASHION



CHANEL